아산신문



아산신문 QR코드

【주간】 제4호 2019년 9월 24일 ~ 9월 30일 www.assinmun.kr 아산의 등불 | 2017년 7월 27일 창간

충남도, 말로만 '투명행정'...실상은 '밀실행정'

대표 자격시비 제기된 충남복지재단 창립 이사회 비공개 진행



충남도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밀실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강조하는 투명행정 실천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충남복지재단 창립 이사회를 도청 302호 회의실에서 가졌다.

충남복지재단의 출범을 앞두고 조직구성과 예산, 실행 업무 등을 보고하고 추인 받는 중요한 회의인 셈이다.

특히 '김영란법'을 위반한 전직 충남도 고위 공무원을 대표로 내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격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터라 이날 이사회 결과가 도민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도는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부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밀실행정의 전형을 드러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도민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취재에 나선 취재진마저 회의장에서 강제로 내쫓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완호 사회복지과장은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강압적인 자세로 이사회의 방청을 제지했다.

이 같은 충남도의 밀실행정에 도민들은 한심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자격시비가 일고 있는 전직 공무원의 복지재단 대표 선임을 둘러싼 이사회의 지적이 외부에 노출되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치졸한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도가 떳떳하지 못해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사채용과 도내 복지단체의 반발 내용 등을 도민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숨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55)는 "충남복지재단은 설립 얘기가 나올 때부터 김영란법을 위반한 전직 도청 간부의 대표 내정설이 나돌면서 시끄러웠다"면서 "양승조 지사가 추구하는 투명행정과 배치되는 밀실행정을 펼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복지재단의 기본 재산은 50억원이며, 설립 후 도가 5년간 출연키로 했다. 또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사업비 역시 도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및 분석·진단, 현장 정책 지원 ▲위기 등 고난이도 사례 컨설팅 및 솔루션 운영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배분을 위한 나눔네트워크 구축 ▲충남사회서비스지원단 및 대체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정운대 기자

Index

2


송악 평촌리 사슴농장 신축...주민 반발 거세

주민들 "사슴농장 청정 송악 이미지 해쳐"
농장주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허가 완료"

3


민주당 아산을 지역위, '2019 정책 페스티벌'에서 공로상 받아

아산을 지역위, 충남 대표로 본선에 진출

6


아산시, '제100회 전국체전 성화 봉송'

은행나무길에서 성공개최 기원하는 성화 점화

11


청와대 떠난 복기왕 "아산시 위한 큰 그림 그렸다"...본격 총선행보



둔포 A초등학교 사태 책임은 누구에게?



교장과 교사간의 갈등으로 시작된 아산 둔포에 위치한 A초등학교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학기 개학시에는 수업거부와 방과후 교사 채용 논란 등으로 문제가 제기됐고, 이 학교의 교장 B씨는 지난 8월말부터 휴직 중으로 현재 업무대행체제를 갖춰 교감이 업무공백을 채워가고 있는 실정이다.

본보가 취재를 위해 이 학교운영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더 이상 학교 문제로 인해 기사가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아산교육지원청에서 추석 전날 실태조사를 나왔고, 실사 후 도교육청 외부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A초등학교 교감은 "현재는 학교가 안정화된 상태로, 내년 2월까지 교감체제로 진행될 것이다"고 설명하며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이번 사태를 잘 헤쳐 나가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이기에 큰 문제없이 해결되고 있다"고 밝 혔다.

이번 일에 대해 아산교육 지원청 관계자는 "지난 8월 이러 한 상황이 한 언론에 보도된 당일 아산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A초등학교를 방문해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했고 이후 장학사 컨설팅과 아이들 심리문제 등 집단상담까지 완료한 상태이다"며 "개인과 개인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지 못 해 불거진 문제들로 시끄럽게 비춰져 안타깝다"면서 "감정 문제로 인해 3자가 개입되며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용문제나 회계 모두 조사 중에 있고 충남도교육청에서 10월 안에 결과가 나와 어떤 형태이든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다"며 "학교는 정상화 되고 있어 아이들이 받을 피해와 당사자들이 감당 못 할 피해까지 입을 수 있을까 우려된다"고 조심스러워했다.

한미영 기자

송악 평촌리 사슴농장 신축...주민 반발 거세

주민들 "사슴농장 청정 송악 이미지 해쳐"
농장주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허가 완료"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슴농장 신축 허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평촌1리 마을 입구에는 냄새는 물론 소음과 주변 환경의 오염을 주장하며, 축사 신축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다.

신축되는 사슴농장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곳으로 논 한가운데 축사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주민 A씨 는 "축사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 민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 다.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악취로 인한 고통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면서 "축사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 서명 80여장을 아산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 B씨도 "축사 짓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 없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사슴농장이 마을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이 한 사람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는 없다. 신축 공사는 막아낼 것"이라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당초에는 반대하는 민원이 없다가 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들의 반대가 시작됐다. 사슴농장의 경우 5호 이상의 가구와 200m이상 떨어지면 허가가 난다. 이번의 경우 340m정도 떨어진 상태로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농사짓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장방문과 건축주와 커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농장주 백 모씨는 "인근에서 사슴 농장을 하고 있었지만 무허가 축 사 적법화가 이뤄지질 않아 부득 이하게 평촌리로 이전하려는 것으 로 지난여름 평촌리 땅을 구입해 올 1월 축사 신축을 위한 허가를 아산시로부터 받았다"면서 "얼마 전부터 콘크리트 바닥 작업까지 기초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지역주 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며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 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백 모씨는 "축사 허가 난 이후에 송악면 친환경 농사짓는 주민과 평촌리의 지인들 몇 명을 찾아가 미리 축사 신축을 의논 했었다. 불법도 아닌 개인 재산을 들여 한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무조건 반대를 외쳐 무척 난감하다. 주민들과의 원만한 협의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장주 백 모씨는 이번 주부터 다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평촌리 주민들은 시장실을 방문할 계획이다.

한미영 기자

아산시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3위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다'

충청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최다로 서울보다 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산시가 교통사고 사망률 3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 (천안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 (Transport Culture Index)'를 분석한 결과, "560만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만 서울시 의 3.4배나 많고, 세종과 청주가 사망률과 사망자 수 1위 그리고 당진은 교통문화지수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교통문화 의식이 달라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 하다"며 의식 개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 했다.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 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부분은 충청지역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밀집지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도시별로도 ▲세종시가 사망률 1위 ▲청주시는 사망자 수 1위 ▲당진시는 '교통문화지수'는 꼴찌(49위)를 기록하는 등 충청권 도시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우선 눈이 가는 부분은 광역시· 도 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역별 순위는 세종이 2위, 충남 3위, 충북 5위로 상위 5위 가운데 충청지역 이 3곳으로 타 지역을 압도했다. 사망자 수에서는 더 심각해,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지역 사망자는 모두 390명으로 서울시 116명보다 3.4배 많고 경기도 393명과 비슷했다. 충청(560만명), 경기(1,300만명), 서울시 (970만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충청이 경기보다 2.3배 서울보다 5.8배나 많은 셈이다.

도시별 순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구 30만 이상 29개 도시 가운데, 세종시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청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사망률과 사망자 수 두 지표 모두 충청 대표도시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49개 도시 중에서 당진시는 '당진 교통특별 시'라 칭할 만큼 대다수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결과 교통문화 전체를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 에서 49위 꼴찌로 평가 됐다.

인구 30만 이상인 29개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1위 세종 ▲2위 경기도 남양주 ▲3위 충남 아산 ▲4위 경기 김포 ▲5위 경북 구미 순이었다. 충청지역 4개 도시 가운데 두 곳이 1, 3위를 청주와 천안도 10, 13위를 각각 기록했고, 등급 또한 E등급 2곳, D등급 1곳, C등급 1곳 등으로 충청권 도시의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률 3위를 차지한 아산시는 지난 5년간 (2014~2018)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4982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15명, 부상자는 7170명에 달한다. 또한 2017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183건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298명이 다쳤으며, 2018년에는 140건의 음주 사고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217명이 부상을 입었다. 어린이 사망자는 2017년에는 1명, 2018년도에는 없었으나 65세 노인 사망사고가 2017년 13건, 2018년 17건으로 증가했다. 이륜차로 인한 사고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건, 38건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2017년 6명, 2018년에는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순위도 비슷해서, ▲충북 청주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원 34명 ▲경기 화성 33명 ▲충남 아산 29명 ▲경기 남양주 28명 순이었다. 충청지역 청주, 아산, 세종, 천안 4개 도시 모두 1, 4위와 11, 13위로 상위에 포함됐다.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경우에도, 교통 사고 사망률에서 ▲충남 당진 2위 ▲충남 서산 7위 ▲충남 공주 10 위 ▲충남 논산 11위 ▲충남 보령 17위 ▲충북 충주 18위로 대다수 도시가 중상위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하위권에 속하는 도시는 충북 제천 37위, 계룡시 48위 두 곳 뿐이었다.

특히 충남 당진시는 교통문화 전반을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 부문에서 49위로 꼴찌를 차지해 최악으로 평가 됐다. 항목별로는 25개 지표 가운데 ▲문화지수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보행행태) 2개 항목에서 49위로 꼴찌였고, ▲조사항목별 교통안전 ▲평가지 표별 교통안전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교 통사고 사망자 수 ▲교통안전 실태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5개 항목에서 48위 등 14개 항목에서 40위권으로 밀려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항목에서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어, '당진 교통특별시'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미영 기자

민주당 아산을 지역위, '2019 정책 페스티벌'에서 공로상 받아

아산을 지역위, 충남 대표로 본선에 진출



더불어민주당 아산을 지역위원회가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 본선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당 최초 '정책 페스티벌'로, 사전에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가 내부 토론을 거쳐 우수 정책을 한 가지씩 출품했고 17개 시도당 지역위원회가 출품한 정책이 이날 본선에서 다시 겨뤄졌다. 이날 아산을 지역위는 장애인이 불편없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센터(가칭 더불어놀아유)' 건립을 제안했다.

발표에 나선 김미영 아산시의원은 "장애인이 편하게 쿠킹 클래스, 영화관, 스포츠 센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편한 세상은 누구에게나 편한 세상이다"고 해당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 지역위 20팀을 대상으로 본선을 치룬 아산을 지역위는 이날 10위에 올랐으며, 충청권 전체에서는 1위에 등극했다. 아산을 지역위는 지난 5일 열린 충남도당 정책페스티벌 경선에서 1위에 올라 충남도를 대표해 본선 경선을 치룬 것이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우리 아산을이 충남을 대표해 전국 본선에서 공로상을 받아 뜻깊다."며 "당원분들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주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정책경연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을 내년 4·15 총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미영 기자

9월부터, 아동수당 만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

수당 중지됐던 아산지역 3,400명 아동 혜택

아산시가 이달부터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아산지역 3400명의 아동들이 매월 10만원의 혜택을 받게됐다.

기존에 수당을 받아던 2012. 10월생 ~ 2013.8월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당이 지급된다.

하지만 아동수당급여가 중지됐던 기간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했으며, 현재 보호자나 계좌 등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그동안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여성가족과 540-2108로 문의하면 된다.

한미영 기자

오세현 시장, 국회에서 관내 기업 현장의 목소리 대변

일본수출규제 특위 간담회 참석

오세현 시장이 '일본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 기초자치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관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지난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이 입지한 지자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아산, 천안,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이천, 파주 등의 자치단체장과 정세균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관계자가 함께했다. 이날 오세현 아산시장은 일본수 출규제에 따른 아산시의 대응 방안 및 현황을 소개하고 그동안 경제협력협의회 등 관내 기업인과 수차례 가졌던 간담회 청취 내용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강력히 건의했다.

오 시장은 "중소 기업이 기존 외국회사보다 더 뛰어난 소재·부품의 국산화·양산 화에 성공해도 대기업 수용이 어 려워 연구개발 투자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납품 까지 안심하고 소재·부품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 록 개발 초기부터 대기업이 투자·참여하는 수요 연계형 연구개발 구조 마련 등의 관련 부처 정책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관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접수된 ▲분야별 근무시간 탄력적 조정 ▲담보·보증 능력 부족 기업에 R&D 자금지원 확대 ▲규제 중심의 화관법·화평법 등 환경규제를 단속에서 지도·감독으로 전환 ▲정부 부처별 지원 시책 일원화 등 기업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대변했다.

오 시장의 건의사항 중 중소기업 고충 해결을 위한 수요연계형 연구개발 정책은 특위 위원으로부터 깊은 공감을 얻었으며, 참석자들 간에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뤄졌다.

한편, 아산시는 일본 경제보 복조치에 대응해 일본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여는 등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왔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애로사항을 오 시장을 중심으로 직접 챙겨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산을 만든다는 취지로 민관합동 기업유치지원단과 경제협력협의회, 경영애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현자 기자

배방 환승정류장에 시외·고속버스 정차한다

오는 10월부터 시외·고속버스 6개 노선, 97회 정차



배방 환승정류장에 오는 10월부터 시외·고속버스가 정차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외버스운수업체, 충남도와 현장 답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한 결과 지난 8월 21일 최종적으로 배방 환승정류장에 시외·고속버스 승·하차가 결정됐다.

배방 환승정류장은 기존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운영 중인 서부휴게소(봉강교)를 경유하는 시외고속버스 중 인천행 고속버스를 제외한 6개 노선 97회 버스가 정차한다.

배방 환승정류장은 당초 대중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힌 차원에서 면소재지와 시내권을 연결 하는 지간선 시내버스의 거점 마련 및 시외고속버스 정차를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조성됐다. 하지만 서부휴게소와 불과 약 1.5km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환승정류장 추가 경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으나 배방 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정차가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시외·고속버스 정차에 따른 버스 승·하차장 시설 정비와 더불어 매표수단 마련, 경유 버스의 시간노선 조정 등 사전 작업이 이루어진 후 10월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배방읍민의 숙원 사업이던 배방 환승정류장 추가 정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분들 께서 애쓰신 결과 어렵게 협의가 이루어진 만큼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인옥 기자



‘KSPO 아산체력인증센터’ 개소식 갖고 본격 운영

아산시민에게 체계적·과학적 체력인증 검사 서비스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력100 KSPO 아산체력인증센터’가 아산시에 둥지를 틀고 지난 20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아산체력인증 센터(이순신종합운 동장 2층)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고 공단 이 주관하는 국민체육복지 사업인 ‘국민체력 100’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곳이 다. 센터에서는 국민들이 건강하고 활력 있게 건강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국민 체력인증 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체력인증 등 과학적인 체력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체력측정은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등 연령별로 6~7개 항목별로 측정하고 우수자는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서 발급(1~3등급)을 통해 체력인증을 받게 된다.

또 체력측정과 평가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저체력자를 중심으로 주3회 8주 과정의 체력증진 교실을 운영한다.

아산체력인증센터가 들어서며 아산시는 충남스포츠과학센터, 충남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 관내에 전문체육, 일반인, 장애인 등 전 계층이 이용 가능한 체계적인 체력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시는 이러한 체력인증 시설 완비를 통해 민선7기 아산이 시민건강을 위해 힘주어 추진하고 있는 ‘1인 1생활체육’ 시책 활성화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아산체력인증센터는 이순신종합운동장 내에 위치한 전문체육인을 위한 충남스포츠과학센터와 함께 연계해 국민체력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 등 ‘생활체육-전문체육’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체육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선제적 복지서비스이기에 민선7기가 출범하며 1인 1생활체육 활성화 등 시민이 바라는 정책을 약속했다”며, ”센터가 앞으로 아산시민의 건강 지킴이와 건강 일번지와 같은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천안아산역에서 KTX타고 강원도로 떠나자!

충청권-강원권 철도연계 특가상품 ‘깡충깡충’ 출시

대전충남본부 천안아산관리역은 충청권 고객들의 편리한 강원도 여행이 가능토록 KTX 연계 특화상품 ‘깡충깡충’을 출시했다.

‘깡충깡충’은 20명 이상 여행 시 맞춤형 셀프메이킹코스로 연중 운영되며, 구간별 최대 열차할인율(10~60%) 적용 및 강원도의 연계버스 지원을 포함해 성인 기준 최저 73,600원(* 어린이 51,600원)부터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이외 운영 중인 ‘월화愛, 힐링 정선기차여행, 뛰뛰빵빵 강릉택시’ 상품에 경부선(천안아산↔서울) 구간을 추가한 상품도 선보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천안·아산에서 강릉까지 자동차로 4시간이 넘는 이동시간을 KTX를 이용하면 2시간대로 줄일 수 있다. 또한 날씨 및 교통체증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철도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고려한다면 타 교통수단과 비교해 경쟁력이 충분하다.

박삼희 역장은“이번 강원권 철도연계상품 ‘깡충깡충’을 계기로 충청권 고객의 강원권 여행 편의성을 높였으며, 강원 동해안 산불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 소비 촉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지역간 교차관광을 통한 국내여행 활성화 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 구직자 모여라~”‥아산·천안 일자리박람회 개최

아산시와 천안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19 아산·천안 일자리 박람회’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아산이순신 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인력이 필요한 기업체에는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채용관은 50여개의 기업체가 참여해 연구직, 사무직, 영업직 등 다양한 직종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취업지원관은 10개의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해 일자리정보 제공, 이력서 및 면접코칭 등 취업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이력서 사진촬영, 면접 헤어·메이크업, 타로 적성검사, VR체험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지참해 취업을 원하는 기업의 채용관에서 현장면접을 볼 수 있다.

아산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해 일자리를 찾는 기쁨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행복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530-6278)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자 기자



아공노, 아산지역 모 인터넷신문기자 A씨 규탄

“이래도 기자라고 해야 하는가?”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아공노)이 23일 아산지역의 한 인터넷신문기자 A씨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주취 소란을 일으킨 기자 A씨가 추석을 앞두고 또 다시 비서실 직원에게 욕설하고 녹차가 담긴 종이컵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당직실 주취 소란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우리에게 했던 사과와 약속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경찰에 연행당한 날에도 무슨 낯짝으로 뭘 잘했다고 당직실에 전화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가? 어찌 그렇게 하고도 기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맹 비난했다.

특히 “악성민원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아산시공무원의 서명부를 경찰서에 전달하여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도내 공무원단체를 비롯해 공노총, 시군구연맹에 사례를 전파해 악성민원인이 어디에서도 기자신분을 이용하여 갑질하지 못하도록 대응할 것이다”고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시집행부는 시장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법적대응에 앞장서고, 언론인으로 어떠한 대우와 응대를 하지 말고, 이번 악성민원인을 대응하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지역언론인은 동조나 옹호하지 않는 것을 넘어, 악성민원인이 지역언론계에서 퇴출되도록 이슈화하여, 더 이상 양심있는 언론인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실추된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지역 기자 A씨의 퇴출을 위해 시집행부와 지역 언론인이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기자 A씨는 “만취해 기억은 잘 없으나 당직실에서 차를 한잔 마시고 나오는데 오전 7시경 비서실 직원들이 시장실로 올라가기에 따라갔었다. 두 명중 술을 마셨다는 한 명이 짜증내며 깐족거려서 찬 녹차를 나도 모르게 뿌린 것 같고 경찰이 다녀갔다”면서 “공무원들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저도 당직공무원에게 협박받은적도 있고 쌍방폭행건이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인데, 노조는 공무원 잘못은 언급치 않고 본인에 대한 잘못만 부각시키려는것은 정당치 못하다고 여진다”면서 ”술에 취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께 미안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아산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재 형사팀에 서류만 넘어온 상태로 자세한 것은 조사 후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이선사회복지재단, '사회복지 종사자 안전구축 위한 교육' 실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보호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의 인식개선과 전문성을 강화를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

복지법인 기독교이선사회복지재단(이사장 이재정 목사 이하 이선복지재단)과 충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잠깐 멈춤과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을 지원한다.

(사)충남요양보호협회 어르신 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의 위기상황 예방 및 대처능력 강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남서울대학교 지식정보관 3층 세미나실에서 매주 금요일 진행된다.

(사)충남요양보호 협회 이영해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직무외상을 경험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차적 외상 후 스트레스 회복지원을 위해 마련됐다"며,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을 통한 위기상황 대처능력 강화 및 업무외상으로 인한 기력소진 예방목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미영 기자

어르신 목욕권, 이·미용권 선택제 도입 쏠림현상으로 업계 반발 우려

목욕권 1매당 700원, 이·미용권 4천원으로 책정

아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배부되는 목욕권과 이·미용권이 시민편의를 위해 선택제로 이뤄진다.

어르신 목욕권과 이·미용권은 아산시의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으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올해부터 지원이 확대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목욕권과 이·미용권으로 분리하고 지급단가를 구분 인상해 상반기 목욕권 6매, 이·미용권은 3매가 지급되며, 아산시 소재 목욕탕과 미용실 이발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20억이었던 예산이 올해 23억으로 확대됐으며, 96%의 지급율로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산시민 A씨는 "커트는 이·미용권 2장을 사용하면 가능 하다. 하지만 선택제를 도입하면 시장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미용 권으로 대부분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쪽 업계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치우치면 다른쪽의 불만이 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회의를 거쳤고, 올 1월 업체들과 논의를 거쳐 목욕권 1매당 가격은 3700원, 이·미용권은 4천원으로 책정했다. 시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아산시청소년재단, 창립총회 개최

아산시 교육비전 핵심 역할 담당

아산시청소년재단이 창립총회 및 임원 위촉장 수여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민선7기 아산은 지난 6월 26일 아산 행복교육 비전 선포식을 갖고 시대변화에 따라 보다 폭넓게 요구되는 교육 분야 지자체 역할에 발맞추기 위해 자기주도적 문제해결, 인성 함양, 진로탐색 역량강화에 중점을 둔 교육지원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지원 정책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청소년 재단 설립 ▲진로코칭센터 운영 ▲청소년 시설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 ▲장학사업 확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6개 중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6개 핵심사업 중 아산시청소년재단은 아산 교육비전 실현 과정에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 시설을 전문적·체계적 관리로 운영하고, 변화하는 청소년 정책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총괄 전담기구의 필요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창립총회는 오세현 이사장(아산시장)과 이사 13명, 감사 2명을 포함한 16명의 임원과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위촉장 수여와 함께 경과보고, 재단 소개, 정관 제정안 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재단 조직은 설립초기에 1국(사무국 3팀), 1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으로 운영하고 향후 시에서 민간위탁한 5개 청소년시설을 단계적으로 통합 운영할 방침이다.

아산시청소년재단은 앞으로 학교연계사업, 수련프로그램 등 청소년활동 진흥사업을 비롯해 청소년문화의집 내 진로진학코칭센터 운영 등 시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관한 운영·관리, 청소년 보호·복지·교육·상담 사업을 다방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현 이사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정책 혁신 대토론회를 거쳐 아산교육비전 선포식을 갖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청소년 전담기구 청소년재단을 만들게 됐다"며, "오늘 위촉한 임원 여러분이 재단과 함께 아산에서 자라고, 아산에서 배워, 아산과 세계를 호령할 아산 인재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3세대 가정, 효도수당 신청하세요"

80세 이상 어르신 포함, 3세대가 3년 이상 함께 거주 시 신청

아산시는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 한다.

효도수당은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되며, 신청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세대 당 매월 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자 신분증, 수당 지급통장, 효도수당지급신청서 등을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효도수당의 지원대상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일 거주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해당된다.

효도수당 중지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달까지 지급되며, 중지사유는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등 효도가정 요건이 변동되었을때,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등이다.

시는 2011년부터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월 630여 가구에 지원하고 있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효도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미덕이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할 우리의 정신이다"며,"아직도 우리 주변에 효도수당 대상자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 이웃들도 적극적으로 안내해 우리 사회에 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아산시, '제100회 전국체전 성화 봉송'

은행나무길에서 성공개최 기원하는 성화 점화



올해 제100회를 맞는 전국체육대회의 성화봉송이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전국에서 채화를 진행한다.

이번 전국체전 성화는 지난 22일,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을 시작으로 독도, 임진각, 마라도 등 전국에서 특별 성화를 채화하며, 아산은 제97회 전국체전을 개최한 인연으로 성화를 봉송했다.

23일, 은행나무길에서 출발한 성화는 15명의 주자에 의해 송곡사거리-충무교사거리-민속박물관사거리-아고오거리-시민로사거리를 거쳐 아산시청에 도착했다.

이날은 지역 주민과 체육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난타 공연팀 '라퍼쿠션'의 공연으로 흥을 돋웠으며, 오세현 아산시장은 특별 무대에 올라 노하나(아산시청 하키팀) 선수와 함께 성화를 채화했다.

오세현 시장은 "제97회 전국체전을 비롯해 5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던 아산에 의미 있는 발걸음이 도착해 기쁘다"며, "아름다운 은행나무길은 전국 관광객이 몰리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곳이기에 오늘 채화된 성화의 에너지가 전국체전 현장에도 전해지기를 34만 아산시민의 뜻을 모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아산시교향악단, 제28회 정기연주회 개최‥오는 27일

'멘델스존의 이브와 종교개혁' 클래식 공연

아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아산시교향악단은 오는 27일, 아산시 평생학습관에서 제28회 정기연주회를 무료로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멘델스존의 이브와 종교개혁'이라는 부제로 '루이 블라스' 서곡,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교향곡 제5번 '종교개혁' 등 모두 멘델스존의 곡만을 연주한다.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는 세계 3대 바이올 린 협주곡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영국의 평론가 스탠딜 베네트는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담이라고 한다면,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이브이다'라고 말했듯이 낭만파 음악의 금자탑이라고 할 만한 걸작으로 균형 잡힌 세련된 형식과 향기 높은 내 용은 베토벤의 협주곡과 견줄 수 있는 명곡이다.

멘델스존 교향곡 제5번 라장조 '종교개혁'은 루터가 가톨릭교에서 신교를 만든 종교개 혁 이래 300년째가 되는 축전에 임해서 작곡한 것이다. '드레스덴 아멘'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아멘이라는 말에 가락을 붙인 짧은 찬송가 구절(제1악장)을 으뜸선율로 하고 루터가 만든 코랄 '내 주는 강한 성'을 도입해 축전을 축하하는 기쁨의 감정(제2악장), 경건한 기도(제3악장), 신교도의 종교개혁에 대한 장엄하고 엄숙한 마음속의 찬미(제4악장)로 되어 있다. 홍원기 단장은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는 아산시민과 일반인 들의 많은 관람 바란다"고 말했으 며, 문화장터 홈페이지(http://asiamunhwa.com)를 통해 무료예매 할 수 있다.

한편, 아산시교향악단은 2004년 9월 1일 아산시 최초로 창단한 프로페셔널 민간 오케스트라로 천안예술의전당 개관기념 오페라 〈라 보엠〉 공연, 피아졸라 〈탱고 모음곡〉 한국초연, 베토미오 2016년 2월에는 충청남도로부터 전문연주단체, 2017년 8월 월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이현자 기자

호서대 건학 41주년 기념 '행복한 가을음악축제' 개최

아산캠퍼스에서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진행

호서대학교는 오는 25일, 아산캠퍼스 원형광장에서 건학 41주년 기념 가을음악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한 외부인사와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초대하여 호서대 이철성 총장과 학생,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아모르파티를 부른 가수 김연자를 비롯하여 박봄, K타이거즈, 서출구, BP라니아, 머스트비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 출연자들은 모두 지역사회와 함께 나눔을 실현하는 대학의 취지에 동참하기 위해 재능기부 형태로 무료공연을 펼친다.

또한, 식전 공연으로 호서대 실용음악과를 중심으로 재즈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며, 관람객들을 위해 교무위원회, 교수협의회, 교목실, 행정팀장협의회 등에서 무료 음료 및 간식을 제공하는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철성 총장은 "건학 41주년을 이루는 동안 우리 대학의 성장을 이뤄낸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건학 41주년을 맞이하는 호서대는'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교훈을 바탕으로 벤처정신으로 설립되어 충청권 사립대학 중 가장 큰 모집단위 규모의 대학으로 성장했으며, 제2주기 대학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었고 LINC+사업, 평생교육사업, 초기 창업패키지 등 주요 국책사업들을 유치하여 그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이날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며, 셔틀버스 승하차 장소는 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현자 기자

온양문화원, '제5회 아산시민생활문화한마당' 성료

생활문화동호인의 축제의 장 마련

온양문화원는 지난 19일부터 20일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제5회 아산시민생활문화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아산시민생활문화한마당 은 지역주민의 문화감수성과 문화 적 역량을 발표 및 경연대회를 통 해 선보이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 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사회로 연결하고 나누어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드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한마당 행사에서는 청소년, 일반, 어르신 등 아산지역에서 활동 중인 20개의 동아리 단체들이 다양한 문화 장르를 선보였으며, 20개의 프리마켓 부스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제품을 전시·체험 및 판매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정종호 온양문화원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각양각색의 문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동아리들의 숨겨진 끼와 능력, 재주를 마음껏 펼쳐 보여주는 장을 만들고자 추진했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생활문화 동호인들이 기존의 생활문화 생활문화에서 벗어나 장르 간 융복합을 통한 콜라보로 생활문화 예술 콘텐츠를 만들어가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번 경연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A씨는 "문화생활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되찾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쁨이 있어 감사하며 이렇게 경연대회를 열어 다양한 생활문화를 감상할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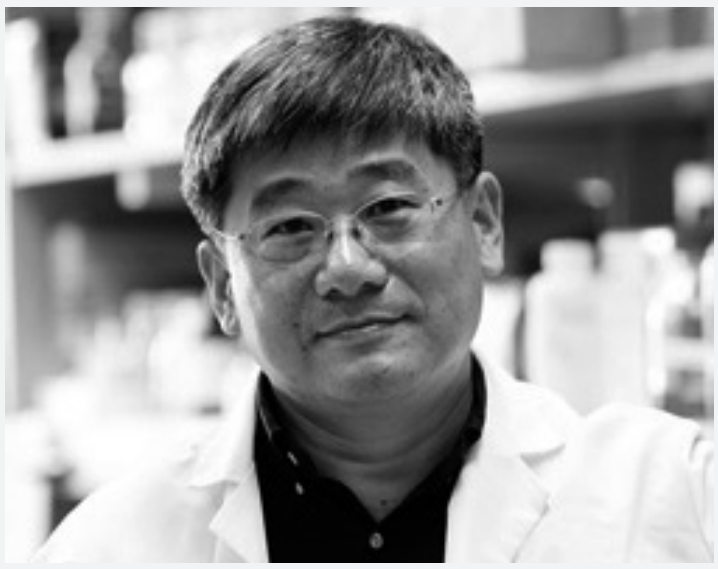
경연 대회 결과 청소년팀인 런피플 스티릿 댄스팀이 으뜸상을 수상했으며, '빠담빠담 장구난타팀'(희망상), '은빛 색소폰 앙상블'(기쁨상), '꿈꾸는 나무'(열정상), '꽃길소리' (노력상), 2일간 열심히 응원한 '작은거위' 팀에 응원상의 영광이 주어졌다.

특히, 아산시 '1인 1악기 갖기 운동'에 부흥하기 위한 노력으로 생활문화 동아리들의 악기연주 및 다양한 악기체험 부스(타악기, 오케스트라 악기, 풍물악기 등 27여종)도 함께 진행돼 관람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온양문화원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생활문화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생활문화동호회를 수시 모집중에 있다.

한미영 기자

순천향대, 2019 기초연구사업,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로 선정
7년간 기초연구비 약 105억원....'제2형 당뇨병' 연구착수



순천향대가 과기정통부가 지원하는 '2019 기초연구사업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사업'에서 '대사질환 조직 항상성 연구센터'로 이종순 교수 연구팀의 연구과제가 대전·충북·충남·세종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종순 교수연구팀은 '지방조직과 베타세포의 조직재생에 의한 제 2형 당뇨병 치료연구'에 대해 2026년 2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 교수 연구팀은 인슐린 저항성에서 지방조직에 의해 베타세포가 증식하는 분자적인 기전과 이를 조절하는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매개인자들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재생을 통한 베타세포로 제2형 당뇨병 치료의 신기술 개발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당뇨병 대란이라고 불릴 만큼 당뇨병 환자 및 관련 진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서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으로 야기되는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초기 치료는 혈당조절 약물을 섭취하는 것이 지만 말기에 이르러서는 베타세포의 사멸로 인하여 결국 인슐린 주사가 쓰이게 된다.

총 연구기간 7년간 동안 90억의 총 연구비가 투입되며, 지자체로부터 약 15억 원의 대응 연구비도 지원받게 된다.

연구과제 책임자인 이종순 교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베타세포의 생체 증식을 통하여 인슐린 분비를 생리학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엄격하게 혈당을 조절하게 되는 새로운 당뇨병 치료 방법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학 측의 전폭적인 지원도 잇따른다.

향후, 당뇨병의 시장을 고려하였을 때 이 연구과제의 성공은 경제적인 성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 소속 3명의 신진 교수를 초빙 임용하고, ㈜휴엔과의 공동연구 및 협약을 통해 총 16명의 참여연구원을 채용시킬 계획이다.

한미영 기자

충남 올해 수능지원자 1만7486명
지난해보다 1436명 감소

충남교육청이 지난 6일까지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년 대비 1436명이 감소 한 1만7486명이 지원했다.

수능 응시생이 이처럼 감소한 원인은 고3 재학생 수가 2576명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험지구별로 전년 대비 응시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산 시험지구가 289명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천안 시험지구 266명, 공주 시험지구 263명, 아산 시험지구 224명, 논산 시험지구 153명, 보령 시험지구 121명, 홍성 시험지구 120명 순으로 감소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접수 인원 1만 7486명 중 남자는 8739명, 여자는 8747 명이며, 재학생은 1만4349명(82.1%), 졸업생은 2703명(15.5%), 검정고시가 434명(2.4%)을 차지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일은 오는 11월 14일이며, 수험생 예비 소집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예비소집 장소에 참석해 수험표 교부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교육받아야 한다.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은 "수험생이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 선정과 수험생 배치, 시험장학교 방송 시설 점검, 전기·소방 안전 검사, 감독관 교육, 부정행위 예방 교육 등 수능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온양여중, '제49회 추계 전국남녀농구연맹전'에서 우승
'농구부 두 번째 우승컵 거머쥐다'

온양여중 농구부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개최된 제49회 추계 전국남녀농구연맹전 사천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지난 제44회 협회장기 대회(4월, 전남 영광)에 이은 두 번째 우승으로 이번 대회에서 온양여고는 지도상(교사 신미정, 코치 박범익)과 최우수상, 어시스트상(3학년 백지원), 리바운드상(2학년 류가형)등 개인상까지 휩쓸면서 2019년 마지막 전국대회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특히 박범익 코치의 남다른 전술과 지도력은 온양여중 선수들의 끈기와 집중력은 팀을 승리로 이끈 요인으로 작용했다.

온양여중 사격부 또한 2019년 전국대회에서 두 번의 우승을 거둠으로써 농구부화 함께 '온양여중 농구부 · 사격부 동반 연 2회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노재거 교장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위해 자신과의 이어나가는 온양여중 운동부 학생들의 모습이 눈부시다. 앞으로도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며 "온양여중 운동부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눈물과 땀으로 자신과 싸우고 있는 온양여중 농구부, 사격부 학생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연이어 이룩한 온양여중 운동부의 쾌거를 통해 학교 및 아산시 교육지원청의 관심과 지원의 목소리가 커져 2020년에는 사격장 및 농구부 휴게실이 신축될 예정이다.

이현자 기자



유아 영어학원, '유치원' 명칭 사용시 과태료 부과

충남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유아를 대상으로 외국어, 음악·미술, 놀이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유아 영어학원 가운데 '영어유치원'이나 '놀이학교' 등 유치원(학교)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인터넷 포털 키워드에 영어유치원, 놀이유치원으로 검색 시 학원이 노출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과 10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습비 초과징수 등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단속과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학원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철 기자



온양4동, 주민어울림 문화한마당 축제'성료'

주민자차프로그램 발표회 및 경로위안잔치



온양4동

온양4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19일, 환경과학공원 내 야외공연장에서'온양4동 주민어울림 문화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행사는 주민자치 발표회와 효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인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식전행사, 2부 개회식, 3부 발표, 전시회로 진행됐다. 식전행사로 신명난 사물놀이로 흥겨운 분위기를 한껏 고취시켰으며, 온양4동 새마을 남녀협의회와 IBK참좋은 사랑의 밥차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했다.

한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1년간 갈고 닦은 실력과 숨어있던 끼를 한껏 뽐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400 여명의 주민들은 정성껏 무대를 준비한 수강생들을 응원했다.

홍영준 온양4동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온양4동 주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오랜 세월을 공헌한 어르신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송악면 새마을운동협의회, 꾸준한 봉사활동 펼쳐



송악면

송악면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관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해 식혜와 포도를 전달하고 안마 등 봉사를 실시해 귀감이 되고 있다.

또, 교통체증으로 힘들어하는 귀성객들을 위한 차 봉사를 실시했다. 귀성객 맞이 차 봉사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행하고 있으며 귀성객이 향수를 느끼고 고향을 찾는 기쁨이 증대되도록 손수 준비한 차와 간식을 귀성객들에게 대접했다.

새마을운동협의회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릴 수 있어 기뻤고, 귀성객들에게 훈훈한 송악의 정을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송악면 새마을운동협의회는 며느리 역할 봉사 활동, 꽃동산 조성, 기금 마련을 위한 농작물 재배·수확, 환경정화 활동 등 각종 봉사를 통해 면내 사회활동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한미영 기자

웜사이트 조원웅 대표, 온양3동 행복키움에 후원 약속



온양3동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7일, 웜사이트 조원웅 대표와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 특화사업을 위한 식품(제빵)후원협약을 체결했다.

조원웅 대표는 "따뜻한 동네복지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함께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다" 며"조금이나마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홍언순 단장은 "어려운 결정으로 우리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 특화사업나눔활동에 선뜻 동참해 주신 조원웅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 드린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김형관 온양3동장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식품(제빵)을 통한 나눔 실천 통한 기부 문화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인옥 기자

선장면, 3대하천 중심의 자연정화 활동 전개



선장면

선장면은 지난 3월부터 3대하천 지킴이 4명을 선발해 지속적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거 및 낚시하는 내방객에게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선장면은 무한천, 도고천, 곡교천 등 3대 하천이 모여 삽교천을 통하여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마지막 관문으로 낚시꾼들의 여가활동과 아름다운 자연 휴양 중심지로 잡아가고 있다.

이에 반해 다수인이 방문하는 관광지이면서 도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무분별 한 쓰레기 불법 투기와 선진화 되지 못한 의식으로 인해 각 하 천은 많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하천변 생태환경 개선사업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 매주 3회씩 남부 및 도고천 주변과 북부 지역에 대해 2개조를 편성하여 하천변 무단 투기 및 불법 소각된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장면 관계자는 "각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인하여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향후 지속적으로 3대하천 지킴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하천을 찾는 내방객들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문제점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정화활동에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둔포면 이장협의회, 일본상품 불매운동 동참



둔포면

둔포면 이장협의회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경제보복과 일본 아베정부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기 위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했다.

이장협의회는 지난11일 실시된 이장회의에 앞서 '보이콧 재팬',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슬로건 구호를 외치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 한목소리를 냈다.

권혁천 협의회장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둔포면 주민들도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하였다."며 "일본이 이번 경제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현자 기자

염치읍 주민자치위원회, '사랑의 목욕봉사' 펼쳐



염치읍

염치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 관내 독거노인 40여 명을 모시고 온양 제일 호텔에서 '사랑의 목욕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목욕봉사를 마친 뒤에는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점심과 사랑이 가득한 선물을 전달했다.

김종원 주민자치위원장은 "목욕봉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매번 굉장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목욕봉사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민 염치읍장은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는 염치읍 주민자치위원회 김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독거노인 분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온양4동,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캠페인 실시



온양4동

온양4동은 지난 20일 통장협의회 등 5개 단체 회원들과 직원들이 9월 대청소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청소는 온양4동 진입로 및 아산시 대표 관광지인 환경과학공원 주변을 중점적으로 청소했고, 아름답고 살기 좋은 우리 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함께 실시해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 포스터를 나눠주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홍영준 온양4동장은"대청소에 적극 참석해주신 주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면 자원이 되고 뒤섞이면 쓰레기가 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마을 환경을 위한 대청소 및 캠페인을 지속 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음봉면 인적자원망, 음봉산동복지관과 행복기금마련 프리마켓 진행



음봉면

음봉면 인적자원망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음봉지역 행복기금마련 프리마켓 (부제 음봉갬성 플리마켓, 넌 지금설렌다.)'를 실시했다.

지난 21일, 음봉중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한 제2회 음봉지역 행복기금마련 프리마켓 (flea market)은 음봉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음봉면 인적자원망과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공동 기획으로 추진됐다.

또한 나니아2560, 이마트 펜타포트점, 장수복떡의 후원과 U1대학, 노리아이협동조합, 음봉중학교, 천안아산맘블리의 협조, 음봉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물품기부로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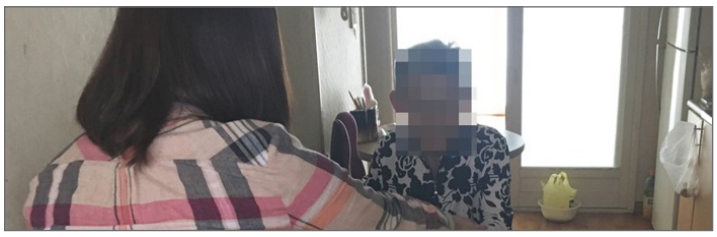
음봉면 행복키움추진단은 음봉지역 행복기금마련 프리마켓 부스 운영 뿐만 아니라 복지 이·반장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최광락 음봉면장은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음봉면 지역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음봉지역 행복기금마련 플리마켓에서는 후원받은 새물품과 기부 받은 깨끗한 중고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후원금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조인옥 기자

신창면 행복키움, 독거노인에 생신상 차려드려



신창면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은 지난 20일, 관내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생신상을 차려드렸다.

이날 생신상은 파리바게트 아산순천향 대점에서 후원한 케이크와 신창 꽃 농원에서 축하화분을 후원받아 어르신께 전달했다.

이번 생신 상 주인공은 남성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으로 "가족처럼 생일을 챙겨주고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모처럼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서광석 단장은 "독거어르신께 생일상을 차려드리는 행사를 통해 즐거움과 정서적 위안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조인옥 기자

배방적십자봉사회, '맞춤형 방문봉사' 실시



배방읍

대한적십자사 배방봉사회는 지난 20일 소외계층 18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봉사를 펼쳤다.

맞춤형 방문봉사는 매월 1회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안부확인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활동이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배방봉사회는 아산시기초푸드뱅크에서 지원받은 식료품을 각 에서 지원받은 식료품을 각 가구의 구성원 및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가가호호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했다.

김효식 회장은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져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호흡기 질환 등 환절기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심어린 걱정의 말을 전했다.

김완겸 읍장은 "어려운 이웃을 누구보다 먼저 살피고, 세심한 관심과 아낌없는 도움을 주는 대한적십자사 배방봉사회에 감사드린다.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웃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미영 기자

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아산신문

온양라이온스클럽, 복지사각지대 환경개선사업 실시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은 온양라이온스클럽과 연계해 지난 21일 관내 사각지대 위기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진행했다.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는 수년간 저장강박증으로 각종 물건을 수집해 집 입구부터 방안까지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로 가득 쌓여 해충과 악취로 건강을 위협하고 이동조차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하는 중장년 남성으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대비한 난방시설 설치 등 온양 라이온스클럽 회원 10여명이 주말을 반납하고 구슬땀을 흘리며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정진국 온양라이온스클럽회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대상자가 앞으로는 좀 더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온양5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저소득 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온양5동 행복키움추진단 김정식 공동단장은 "앞으로도 관내 봉사단체와 지역주민, 행복키움추진단 등과 함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무료 집수리, 청소 등 봉사활동을 통해 희망과 사랑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행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세종, 충남)지구 온양라이온스클럽은 지난 8월 29일 온양5동과 행복키움추진사업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지속적으로 저소득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등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현자 기자

한국112무선봉사단 충남지부, 생명이음 순찰 활동 펼쳐



한국112무선봉사단 충남지부가 지난 7월부터 신정호수공원에서 매일 생명이음 순찰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112무선봉사단은 생명존중인식 확산과 자살률감소를 위해 아산시보건소와 지난 7월 12일 자살위기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일 신정호수공원 일대를 순찰하며 장시간 주차차량 모니터링, 자살예방 사업 홍보 등 불철주야 생명이음 순찰대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신정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생명존중인식 을 심어주는 한편 자살고위험군을 발굴해 자살위기의 순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산시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자살고위험자의 자살위기 상담, 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의순 한국112무선봉사단 충남지부장은 "매일 소중한 저녁시간을 반납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지역사회의 생명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자 기자

이민식·이숙희씨 가족, 취약계층에 백미 후원

올해 2번째 백미 나눔 귀감



모종동에 거주하는 이민식·이숙희씨 가족이 아산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꾸준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민식· 이숙희 씨 가족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물품으로 백미를 2,000kg(10kg*200포)를 아산시에기탁해 복지사각지대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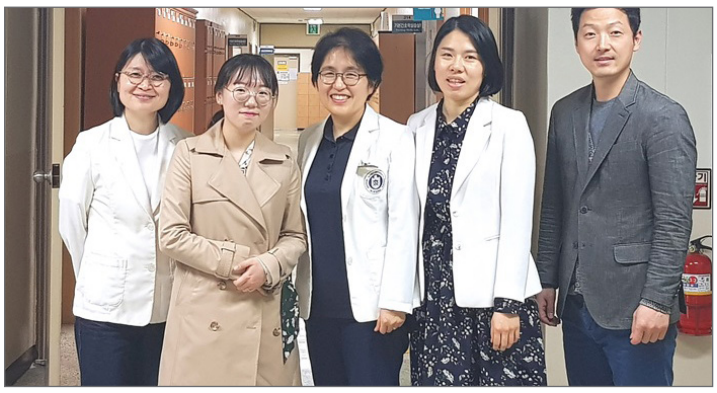
이숙희 씨는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처럼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전달하는 저 또한 마음이 따뜻해지고 ㅌㅌ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행복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식씨와 그의 가족은 온양1동, 온양3동, 영인면 등에 백미, 떡국떡, 연탄, 계란 등 지속적인 후원을 해왔고, 올해 1월에도 떡국떡 170박스(1박스/4kg), 4월 백미100포(10kg)를 후원하는 등 온 가족이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한미영 기자

호서대 박지연 졸업생, 후배사랑 장학금 300만원 전달

"재학시절 교수님께 받은 은혜, 학교 후배들에게 갚고 싶어"



호서대학교 간호학과 졸업생 박지연 간호사가 모교 후배사랑 장학금으로 300만 원을 전달했다.

박지연 간호사는 2016년 호서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천안 순천향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그는 장학금 기탁을 위해 학교를 방문해 "간호사로 일한지 3년이 되는 날 학교를 방문해서 후배를 위한 장학금을 내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많았지만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지금까지 온 것 같다"며 "재학 시 교수님들께서 공부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면 현장의 환자들과 학교의 후배들에게 그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던 말씀을 실천하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지연 간호사의 지도교수인 박승미 교수는 "박지연 간호사는 성적도 매우 뛰어나고, 차분하고 꼼꼼한 성품에 사랑이 많은 학생이었다. 졸업 후 만날 때마다 중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로서 더 공부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하며 스스로 성장해가는 훌륭한 동문"이라고 평했다.

또, 박 교수는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하며 후배들을 위해 300만원을 기부한다고 연락해와 모든 교수들이 놀라고 감동하였고, 졸업생의 기부가 교수들에게는 더욱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하는 선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호서대학교 간호학과는 2006년 개설돼 10회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생 전원이 병원, 보건직 공무원, 제약회사, 보건교사 등으로 간호사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조인옥 기자

온양3동 행복키움, 장학금 전달식 가져

저소득 중 · 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

온양3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행복나눔 장학금은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에서 매년 상·하반기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저소득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통하여 각자의 멋있는 꿈을 응원하는 사업이다.

장학금 전달에 앞서 홍언순 행복키움추진단장은 "장학금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꿈을 펼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나중에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었을 때 다른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손길을 펼치게 되기를 바란다."며 장학금 수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이미 대학교에 수시 합격을 했지만 입학금이 부족해 고민이 많았으나 온양3동 행복키움추진단 장학금을 통해 이를 해결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봉사자가 되겠다."며 해맑은 미소를 지었다.

이현자 기자

청와대 떠난 복기왕 "아산시 위한 큰 그림 그렸다"...본격 총선행보

"한 지역인데도 갈라져있는 지역 정치적 문화 안타까워"
"100원택시, 마중교통 시스템으로 이동 편리성 높였다"



청와대를 떠나 아산에 돌아온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본격적인 총선행보에 나섰다. 늘 소외지역 대상에 관심을 갖고 농업분야와 관심분야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는 어렵고 힘든 영역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펼쳐왔다. 특히 그가 만들어낸 100원 택시는 전국의 교통소외지역의 대중교통의 혁명을 이뤄낸 성과로 이젠 전남도로 내려가 국정과제로 전파되고 있으며, 기초단체장 기간 동안 상징적인 정책적 성과를 거둬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아산신문은 아산에 돌아온 복기왕 위원장을 만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아산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시정을 떠난 지 1년 남짓 지났는데... 그동안 아산시에 대해 아쉬웠던 점과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2010년부터 7년 반 조금 넘게 있으며, 아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였다. 얼마나 기초가 탄탄한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거리와 산업단지의 높은 건물 요구와 더불어 기초 튼튼한 도시, 현시대 사람들과의 행복한 미래까지 이어나갈 것인가까지 지속가능함을 담보해 낼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었다. 이는 각종 주요결정시에 내렸던 기준들이었다.

아쉬운 점은 임기동안 야당의 입장으로 중앙정부 지원이 전무한 상태, 의회지원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시민들의 힘을 의지삼아 고군분투했다. 지역문제나 중앙부처와의 갈등 등 지역정치권에선 비판의 대상으로 공격받아왔다. 한 지역 인데도 갈라져있는 지역 정치적 문화의 안타까움이 있다. 이밖에도 시민의 대표 시장으로 큰 방향 중심으로 고민했었는데 공직 기강이나 공직사회 투명성 등 많은 관심 기울였지만 좀 더 섬세하지 못했던 점 등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늘 아쉬움이 있다.

반면 기초단체장을 하며 보람을 느낀 일도 많다. 아산시의 마중교통 시스템으로 시민의 이동 편리성을 높였다.

아산의 100원택시는 소외된 분들의 교통복지 확대라는 의미가 크며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끝에 이뤄진 사례로 전국적으로 전파되고 있으며, 대중교통의 희망으로 확인됐다.

또한 농업분야에서 친환경 농업 기반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했다. 또한 CJ와의 쌀 계약재배 확대 등 안정적인 판로 구축으로 아산 쌀70% 이상이 판매처를 확보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했다. 지역농협의 샵인샵(shop in shop)개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해 안전하고 신선한 로컬푸드 농산물 공급으로 농민과 소비자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전국최초 아산에서 시작한 것으로 청와대에서 농업비서관실에서 모범사례로 설명하는데 무척 자랑스러웠다.

환경분야로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교육분야는 내고장학교다니기 추진으로 관내고교 진학률을 높였으며 새로운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여러 정책들이 큰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도 자부심을 느끼지만, 무엇보다도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의 적극성과 창조성 등 상대적으로 타지역보다 좀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다.

국정운영에 참여하며 아산시 발전을 위해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있다면

아산 예산반영에 대한 요청과 함께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였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충무교 재가설문제나 천안아산역 복복선 정차역에 관한 현안을 중앙에서 정책결정권자들과 함께 얘기나누며 시민들의 노력들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수석 보좌관으로 국정에 가장 중요한 회의들에 참석하며 나라를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정무적 판단에 많은 영향을 끼는 역할을 해오며, 국가 운영 전반을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 온양도심상권을 살리기 위한 해결책은?

새로운 인구로 인한 소비로 경제와 인구성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출산율이 침체되며, 추가적인 소비가 안 나오고 내수가 확장되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있다. 지방도시는 교통의 발전 자치단체 스스로 해결책은 어렵다.

지역화폐의 도입으로 지역의 경제 유출을 막아내고 여당이 발의한 유통산업 발전법 등으로 대형마트가 지역에 못 들어오게 하는 전통상인 중심으로 유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진흥정책 범국민적으로 지역 전통시장 상인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텐데 이 점이 안타깝다. 수도권 지역만 확대되는 근본적 문제해결 구조가 국가차원의 숙제이다.

시민들께 하고 싶은 말

두 번 임기를 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민의 성원을 가슴에 담고 있으며, 평생의 빚으로 삼고 있다. 감사하게도 대통령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국가운영 전반을 깊숙하게 배웠다.

지방시장으로 경험과 비서실의 심장 핵심부에서 일한 경험으로 아산과 대한민국을 위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미영 기자

순천향대 제35대 이상훈 학생회장

"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후회 없이 보내는 것이 목표"



학우들에 대한 신뢰감 형성은 물론 리더로서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학교와 학생들의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회장. 아산신문은 관내에 위치한 각 대학 학생회장들이 학생회 운영에 대해 구상하고 있는 것들과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봤다.

순천향대 이상훈 학생회장은 모든 학생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행사들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학생회가 잘 해왔던 기존의 사업들을 이어받고, 새로운 사업과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도 임기동안 열심히 해내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

중어중문과에 재학 중인 이상훈 회장은 어린시절부터 총학생회장에 대한 꿈을 키웠다.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인 이상훈 회장은 순천향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총학생회장을 준비했다고 한다. 남들 앞에서서 의견을 대변해주고 어려운 점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고 대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활동적인 것을 좋아한 성격에 누구와도 잘 어 울리며, 학우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가 내걸었던 공약은 총 14가지인데 학교 월간 행사 알림 서비스, 교내 치안 보강, 기숙사와 학식, 수강신청, 등록금, 교내 가로등 보수, 취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공약을 준비했다. 거창하고 관심을 끌 공약보다는 정말로 실현 가능한 공약들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로만 종합해서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말한다.

학생회에서 추진하는 일이나 임기동안 계획

1년동안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자"라는 생각으로 안전에 가장 중점을두고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3월에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고, 4월~5월에는 벚꽃축제 , 7~8월에는 어촌봉사활동, 9~10월에는 피닉시아 축제가 계획중이다. 또한 기존에 했었던 행사와 복지사업들이 이번 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자리 잡도록 준비하고 있다.

학생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실 요즘에는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활동을 많이 안하려 하는 편이다. 하지만 학생회가 없다라하면 학생들의 불편한 점과 힘든점을 학교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창구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 학생회는 학교와 학생들 사이 연결 다리라고 생각한다. 어느 한 편 이 아닌 양쪽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재학생들이 총학생회와 학생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더 관심을 갖을수 있도록 학생회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총학생회는 학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호흡도 잘 맞는다.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아무런 사건사고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나를 믿고 뽑아준 학생들에게 총학생회장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임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다. 총학생회장으로 당선 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시간이 빨리 흐른 것 같다.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는 것이 목표이다.

한미영 기자

NH NongHyup

온양농협

온양그린햇쌀은?

온양농협 조합원과 계약재배하여
일반 혼합 품종이 아닌
찰지고 밥맛좋은 삼광벼로만 만들었습니다.



온양 그린햇쌀 5kg

온양 그린햇쌀 5kg 10kg 20kg

NH NongHyup 온양농업협동조합

| 구입문의 | 041) 544-4869